

# 대중가요 노랫말속의 저항의식

## - Text로서 강산에 3집의 기호학적 노랫말 분석을 중심으로 -

정우일  
 국제대학 실용음악과  
 e-mail : garam051@naver.com

### A Study on resistance consciousness in Popular Songs' lyric

#### - Semiotic analysis of 'Kang San-ae's 3rd album' Lyrics as a Text -

Wooil Joung  
 Dept. of Applied Music, Kookje College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정신과도 같은 노랫말의 분석, 특히 '강산에 3집'에서의 노래가사가 갖고 있는 저항의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3집은 1996년에 발매 되었는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린 '비판적'가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서 론

3집의 노랫말은 1, 2집과는 다르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집의 구성을 살펴봐도 전작들과는 다르게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전체 구성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2집이 발표되고 3집이 나오기 까지 약 2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바다에서 선원들을 몰살했던가 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었고,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기도 했었다. 이렇듯 이 시기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화자는 강한 비판의식을 중심으로 때로는 관조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자신을 현 사회에 속하지 않은 뼈뚫한 사람으로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3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곡에 대한 계열체분석과, 통합체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당시 사회를 비판하였는지 살펴본다.

#### 2. 본 론

##### 1) 뼈뚫기

[표 1] 뼈뚫기의 모티브 분석

| 가사  | 의미 분석  |
|---|--|
| <b>모티브 1</b>  |  |
|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br>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 -현대인의 기본적인 모습, 흔히 매너라고 하는 모습   |
| TV를 봐도 라디오를 켜도<br>뼈뚫기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br>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뼈뚫기 | -어디에서도 호트러짐 없는 똑바른 모습만 보인다는 이야기<br>-하지만 자신은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 |
| <b>모티브 2</b>  |  |
| 조금 뼈뚫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br>조금 뼈뚫하면 손가락질 하기 바쁘네                   | -자신의 살짝 어긋난 모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반인들   |
|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br>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르다고 하네                        | -현재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모습  |
|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가는데  | -자신들도 바르지 않으면서 남이 똑바르지 않음을 역설  |
| <b>반복 모티브</b>   |  |
| 뼈뚫하게 뼈뚫하게 뼈뚫뼈뚫하게<br>뼈뚫뼈뚫하게                                    | -매일을 바른 척 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의미   |
| 그가 서 있는 땅 뼈뚫하게 기울어져 있네  | -지구도 기울어져 있다며, 뼈뚫한 것이 나쁜 것이 않음을 역설                                       |

모티브 1에서는 내면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바르게 사는척하는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모티브 2에서는 겉과 속이 모두 같은 자신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반복 모티브에서 우리가 서있는 지구도 삐딱하게 굴러가는데 조금 삐딱한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이야기함으로, 현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피해의식인 남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가사를 살펴보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에서 현대인의 남을 의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TV, Radio는 세상의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창을 이야기 한다. 모티브 2에서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은 현대인이 갈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반대 의미로 ‘삐딱기’가 쓰인다.

‘삐딱기’는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는 2집에서의 아웃사이더와 같은 맥락이다.

2) 태극기

곡의 순서가 모티브 1부터 모티브 2까지 진행되고 모티브 3은 모티브 2와 거의 같고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다르고 다시 모티브 1의 반복으로 마무리 되어진다.

모티브 1에서는 시청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한 삐딱하게 걸려있는 태극기, 한자리에서 계속 나부끼는 태극기를 보고 대한민국과 동일시하는 모습이고 모티브 2에서는 삐딱한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다고 동일시 하지만, 자신과 다르게 태극기는 타의(정치가와 경제인 혹은 국민)에 의해서 삐딱해졌지만, 아무도 그 모습에 신경을 안 쓰며, 이러한 무관심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참사를 낳은 원인이 되었다고 의미를 내포하며, 모티브 3에서는 또한 이런 무관심이 노태우 같은 무능력한 대통령을 뽑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두 가지 사건 같은 일이 없길 바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가사를 보면 모티브 1에서 ‘태극기’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를 상징하고, ‘대한 독립 만세’는 광복을 의미한다. 모티브 2에서는 ‘삐딱하게 걸린 태극기’와 ‘자신(삐딱기)을 동일시하고, 사람들에게 의해 삐뚤어진 정치, 경제 등등을 비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삐딱기’는 정치인, 경제인,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삐뚤어지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나타내어지며, 모티

[표 2] 태극기의 모티브 분석

| 가사   | 의미 분석   |
|--|---|
| <p><b>모티브 1</b><br/>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br/><br/>하늘 높이 아름답겐지는 몰라도<br/><br/>대한 독립 만세 때부터<br/>펄럭이고 있습니다.<br/>오늘도 시청 앞에 걸린 저 태극기</p>  | <p>-동요 ‘태극기’의 노랫말, 동요의 순수함 같은 태극기의 상징성<br/>-하지만 자신이 보는 태극기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br/>-광복이후로 계속 불리는 노래.<br/><br/>-그리고 시청 앞에 광복이후로 걸려있는 태극기의 모습.<br/><br/>-태극기가 똑바로 안 걸려있고 살짝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과 동일시시킴<br/>-그 앞을 수많은 일반인들 곧, 똑바른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태극기와 자기 같이 삐딱한 사람들은 신경 쓰여지지 않음, 다시 말해 소외 시 됨을 이야기<br/>-자신은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삐딱하다는 것<br/>-하지만 태극기는 사람이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삐딱하게 된 것임, 이는 곧 한국의 정치나 경제가 정치가나 경제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똑바르지 못하고 자꾸 삐딱하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br/>-어쩔 수 없는 태세에 따라 태극기가 흔들림, 삼풍 이라는 동음이의(同音異義)를 꺼내기 위한 발판.<br/>-삼풍(동음이의:同音異義) 백화점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는 안전 불감증과 부실건설의 모습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p> |
| <p><b>모티브 2</b><br/>삐딱하게 걸린 널 보고 있으니<br/>웬지 나를 보고 있는 것도 같은데<br/><br/>우리 앞을 지나가는 저 많은 사람 중에<br/>웬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소외감<br/><br/>나는 그래도 내가 만든 삐딱기야<br/><br/>하지만 너는 우리가 만든 삐딱기</p>  | <p>-태극기가 똑바로 안 걸려있고 살짝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과 동일시시킴<br/>-그 앞을 수많은 일반인들 곧, 똑바른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태극기와 자기 같이 삐딱한 사람들은 신경 쓰여지지 않음, 다시 말해 소외 시 됨을 이야기<br/>-자신은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삐딱하다는 것<br/>-하지만 태극기는 사람이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삐딱하게 된 것임, 이는 곧 한국의 정치나 경제가 정치가나 경제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똑바르지 못하고 자꾸 삐딱하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br/>-어쩔 수 없는 태세에 따라 태극기가 흔들림, 삼풍 이라는 동음이의(同音異義)를 꺼내기 위한 발판.<br/>-삼풍(동음이의:同音異義) 백화점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는 안전 불감증과 부실건설의 모습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p>  |
| <p><b>모티브 3</b><br/>삐딱하게 걸린 널 보고 있으니<br/>웬지 나를 보고 있는 것도 같은데<br/>우리 앞을 지나가는 저 많은 사람 중에<br/>웬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소외감<br/>나는 그래도 내가 만든 삐딱기야<br/>하지만 너는 우리가 만든 삐딱기<br/><br/>이 비가 오는 데야 어쩔 수 없겠지만<br/>절대로 태우(太雨)는 또 오지 않았으면</p> | <p>&lt;모티브 2와 동일&gt;<br/><br/>-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만, 태우라는 동음이의(同音異義)를 꺼내기 위한 발판.<br/>-천직 대통령 노태우 같은 인물이 다시는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저항의식. 하늘에서 내리는 비(雨)는 어쩔 수 없지만 나라를 망치는 큰비(太雨=노태우)는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p>  |
| <p><b>모티브 1 (반복)</b><br/>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br/>하늘 높이 아름답겐지는 몰라도<br/>대한 독립 만세 때부터<br/>펄럭이고 있습니다<br/>오늘도 시청 앞에 걸린 저 태극기</p>   | <p>-모티브 1을 다시 반복함으로 시청 앞에 있는 태극기가 삐딱하게 펄럭여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p>   |

브 2와 3에서 ‘삼풍(三風)’, ‘태우(太雨)’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노태우 비자금연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음이의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3. 결 론

강산에 3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랑에 관련된 가사가 3편, 인생을 노래한 가사가 1편, 가족과 전쟁(남북문제 포함)관련이 1편, 사회비판 6편, 친구에 관련된 가사가 1편으로 분포되어있다. 총 12곡 중, 사회비판에 관련된 가사가 6곡으로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 2집과 비교하였을 때 그의 사회를 보는 비판적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가사의 의미가 가지는 다중 적 의미는 노랫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태극기’에서 ‘태극기’의 원래 뜻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기’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곡에서는 ‘빠딱하게 걸린 널’이라는 표현을 써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기’가 빠들어짐을 마치 나라가 빠들어 진 것처럼 느껴지게 의미를 만들기도 한다.

[표 3] ‘태극기’의 의미구조

| 현상                       | 의미         |
|--------------------------|------------|
| 태극기                      | → 국가       |
| 빠들어진 태극기                 | → 빠들어진 국가  |
| 시청 앞에 걸린 빠들어진 태극기        | → 빠들어진 정부  |
|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걸은 빠들어진 태극기 | → 빠들어진 정치인 |
| 우리가 만든 빠들어진 태극기          | → 빠들어진 국민성 |

또한 같은 곡에서 ‘태우(太雨)’, ‘삼풍(三風)’에 다른 한자를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의미 전환’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강산에3집에서의 가사말은 기호학에 근본을 두고 말의 다중 적 의미를 충분히 활용한 메타포(metaphor)적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음률과 가사로 이루어진 음악에 있어서 노랫말은 그 음악의 정신이다. 아무리 음률을 슬프게 혹은 기쁘게 만들어도 화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언어가 합쳐지면서 화자의 의미가 생산되고 그 의미가 음률과 합쳐지면서

사회적 의미가 재생산되어 힘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마틴루터킹이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을 연설할 때 Joan Baez는 ‘We shall overcome’을 불렀고, 그의 연설문은 다시 Abba의 ‘I have a dream’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사회약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었고, 우리의 70~80년대에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나라에서 금지곡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두 곡에서 노랫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었을까? 이렇듯 노래의 가사는 음악의 정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음악은 물과 같다. 천천히 한 방울 두 방울 흐르다 보면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마찬가지로 직접 바꿀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토양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정신일 것이고 그것을 음악에 담아야 하는 의지 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지영,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 문예마당 1995
- [2]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3] 백선기,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4] 임진모, “젊음의 코드 록”, 북하우스, 2003
- [5] 강연진, “한국 근대 대중가요 형성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6] 전혜주,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위상과 의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7] 한나영, “90년대 후반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소비자 성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